조용한 정의 뒤따르는 상전벽해

(이사야 42:14~25)

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15.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조용한 정의 뒤따르는 상전벽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조용한 정의 뒤따르는 상전벽해'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의 고원지대에서 소금을 캔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개껍데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융기한 부분이 바다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이 된 것입니다. 푸른 바다가 태산이 되었으니 상전벽해가 아니라 벽해태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 밑에 있을 때에 살았던 사람이 바다가 없어지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태산이 우뚝 서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80년 안팎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월이 흐르는 것은 상전벽해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환경이나 여건이 상전벽해의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상전벽해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뽕나무 밭이 변

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변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해주는 이 변화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한 번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며 이런 본문이 있나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14~15절이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4~15절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용한 정의입니다. 앞서 1~1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고 실행하시고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의 노래에 따르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었더니 내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예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며, 믿었다 할지라도 잘못 믿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정의가 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고, 정의를 수행하러 오셨고, 정의를 세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의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 분배적 정의, 도덕적 정의, 정치적 정의, 외교적 정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의 위에 있으며 모든 정의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의를 타도하고 깨부수는 시끌벅적한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 조용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실 때에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나 힌두교를 믿었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문화권 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세상가치에 의해 장악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문화권에 속했든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계층이든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대상들은 첫 번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과 기분과 정서를 가지고 관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정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는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눈치 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배우자에 대해서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알몸이 되는 것처럼 알마음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배우자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에 조용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삶에서는 상전벽해의 개벽과 같은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고치라고 강요하며, 무시하고 탄압하는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용한 정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과 삶의 모습을 정죄하시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다만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을 고쳐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삶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용한 정의 뒤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무를 상징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의 구상과 계획들을 알처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화하는 과정이 육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창조의 구상과 계획들이 알 대신에 어머니 뱃속의 아기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 구상들을 세상에 시행시키시는 것을 닭이 알을 부화시키는 것 대신에, 임신한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암탉이 알을 품은 것으로 비유되었다면, 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엄마가 아기를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엄마처럼 숨 가쁘게 내 삶을 바꾸어 나가시게 되리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는 우리가 열망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저주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이를 이스라엘 선민들이 대적을 무찌른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어나게 될 삶의 지각변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조용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나의 삶의 상태나 형편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조용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은 내 마음에서 일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게서 이루실 상전벽해의 창조적 구상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사건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 창조적 계획들에 대해서는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조용한 정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숨이 차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세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재산을 힘입어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 일을 어렵게 여기며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재물이 있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로써 그의 마음에서 조용한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주변사람들도 가족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이 차도록 일하시며 부자 청년에게 주어져있던 지형들을 바꾸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 말이 아마 겁이 나실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었다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하셔서 무일푼으로 만드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세례받기 전에 이러한 결단을 묻는 과정이 필요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앞에 두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을 두고 말씀하시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며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숨이 가쁘도록 나를 통한 창조적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득권이 하나님보다 중요한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잃는다고 생각한 재산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때에 민족을 살리고 하늘의 은혜를 전달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내막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실 상전벽해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신날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 때에 자주 하는 말이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한답니다. 못 먹고 못 살 바에는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서 구호물자라도 받는 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가난하든 부하든 기쁨으로 가득차서 터질 정도로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8절에서도 맹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만 모셔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을 담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세상을 담은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인생이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세상을 담으면 하나님에 대해 맹인이 됩니다. 나 스스로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6절에 나온 맹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첫 번째로 모신 자들입니다.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동안에는 나 자신의 미래를 바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맹인들은 하나님을 보느라고 세상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인생의 미래를 못 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세상에 대해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미래에 이룰 땅의 일들을 마음으로 보는 동안에는 이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맹인은 선민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이루면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보람차고 기쁨으로 배부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죽도록 이 정의를 거부합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텐데 이 일을 교훈삼아 하나님을 향하라는 당부를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맹인들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 시력이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갑니다. 이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병들고 늙어가는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조용한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 들이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움직이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것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가치들을 담았으니 정의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깨어진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입

니다.
이 믿음은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원죄의 체질을 가진 나는 틈만 있으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 숨이 가쁜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 상전벽해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조용한 정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활화하면서 조용한 정의를 이루게 해주셔서, 이에 뒤따르는 상전벽해의 변화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